태국 새 승왕 무니웡… 청정승풍 회복할까?

와치랄롱꼰 국왕, 2월 7일 프라마하 무니웡 승려 임명

최근까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태국불교계에 새 승왕(僧王)이 탄생하며, 청정승풍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hannel NewsAsis' 2월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 최고 불교지도자인 제20대 승왕으로 방콕 라자보핏 사원 주지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Somdet Phra Maha Muniwong · 89)이 임명됐다. 이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추천한 5명의 승왕 후보 중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이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무니웡은 약 30만 태국 승려들의 수장이 됐다.

이날 프라윳 총리는 기자들에게 "국왕의 의사에 따라 그간 공석이었던 승왕 자리에 무니웡 승려가 올랐다"며 "정치 결탁 및 부패 혐의로 얼룩졌던 태국 불교계 상황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불교인구가 93%에 달하는 태국 불교계는 최근 4년 간 승왕의 공석 상태서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원래 승왕은 승가최고위원회서 지명해왔지만, 승가최고위원회서 지명한 후보자들이 번번이 비리에 연루되며 지난해 12월 국가입법회의서 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특히 지난해 2월 승가최고위원회는 승왕 후보로 솜 뎃 프라마하 랏차망가라찬을 제안했다. 하지만 랏차망가라찬이 2013년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자질 논란이 빚어지며 태국 군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군부는 승가최고위원회 대신 국왕에게 승왕 임명권을 부여했다.

테라바다 불교 고승으로 존경 받아

승왕대행 고가 차량 보유 논란 등 비리 속 4년간 공석이던 승왕 올라

"태국불교 혁신 계기될 것" 기대

또한 태국 최고 사원인 담마까야 주지 프라 담마차요를 비롯한 승려들의 잇따른 불법 행위도 군부가 승가최고위원회에 주어진 승왕 임명권을 철회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랏차망가라찬과 두터운 친분관계로 알려진 프라 담마차요는 지난해 6월 한화 약 470억의 돈세탁 혐의가 드러나 태국 법무부는 담마까야 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2월 7일 태국 최고 불교지도자인 제20대 승왕으로 임명된 방콕 라자보핏 사원 주지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89) 승려. 사진출처=pattayamail

이후 올해 1월 태국 당국은 범법을 저지른 파계승을 단속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 밝히며 태국 불교 혁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무니웡 승려가 새 승왕으로 임명된 데 대해 승가최고위원회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만이 향후 태국 불교계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칸 유잉 시암정보국 상무이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무니웡 새 승왕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태국 불교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한 정치분석가는 'Channel NewsAsis'를 통해 "'담마까야파'로 대표됐던 태국불교계가 타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전한 바 있다.

새 승왕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은 1927년 6월 26일 방콕 서쪽의 랏차부리서 출생, 방콕 마하 마쿳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인도 마나라스 힌두대학서 역사 · 고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테라바다 불교의 고승으로 호주 등 해외서 포교를 펼치며 태국 불교계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승왕 즉위식은 전통에 따라 2월 12일 국왕 주재로 방콕 에메랄드 사원서 열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 틸러슨 국무장관, 달라이라마 회동 가능성 내비춰

"달라이라마 만날 건가" 질문에 "당연하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 흔들기 이어 미중관계 악화 우려

달라이 라마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언제쯤 그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진 후 첫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렉스 틸러슨이 달라이 라마와 회동을 시사한 것 관련 중국이 강한 반발을 표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반(反) 중국 분리주의 인사'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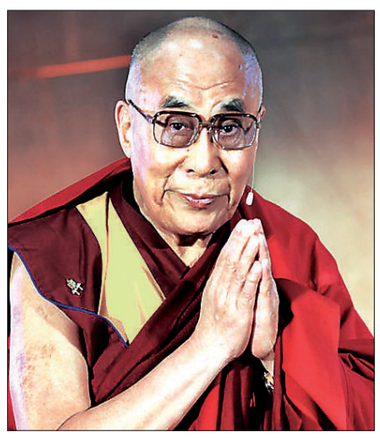
2월 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회 인준 과정서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를 질의하자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이란 입장을 고수하지만,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한 뒤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정부 간 대화도 적극 주선할 것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타이완 문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또한 무역 불균형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더해 틸러슨 국무장관이 달라이 라마와 회동 가능성을 내비추자 중국 정부는 불편한 내색을 표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abcnews



달라이 라마. 사진출처=Daily Express

주웨이췬 (朱維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종종교위원회 주임은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한다면서 달라이라마를 금전적 · 여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중미관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캘리포이나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서 올 6월 열리는 졸업식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단 소식과 함께 현지 중국 유학생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1월 18일 "트럼프 당선인이 책임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 본다"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몽골 방문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적절한 시점에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박아름 기자

미얀마 불교계 420만錠 은폐 승려 발각

빈곤율 높은 라카인州 최근 마약 거래 급증

높아지는 마약 밀매 범죄율에 승려까지 가담하자 미얀마 경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2월 6일(현지시간) 미얀마 라카인주 지역 경찰들의 말을 빌려 "지난 5일 마웅다우시 슈바호 마을서 40만 정이 넘는 메스암페타민을 차에 싣고 운전하던 아르사라 승려를 현장서 체포, 승려의 근거지인 사찰을 조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420만정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캬우 먀 윈 경찰청장은 "조사 결과 아르사라 승려는 지난해 마약류 소지로 구금된 경력이 있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거래의 마수가 승려에게까지 뻗쳤다"고 말했다.

라카인주 지역 언론이 인용한 경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서 두 남성이 메스암페타민 620만 정을 밀매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특히 라카인주서 마약 밀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빈곤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캬우 먀 윈 경찰청장은 "라카인주는 방글라데쉬와 인접한 지역으로, 난민인 로힝야족이 100만 명정도 밀집해 미얀마서 최고 가난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업을 위한 불법 마약밀매가 성행한 한편 'the guardian'은 미얀마가 전 세계 마약류 제조량 상위에 속하는 나라로, 메타암페타민을 비롯해 아편 · 대마초의 상당량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5년 5,000만 정 분량의 마약류 압수에 이어 지난해에만 9,800만 정의 마약류 알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마약 관련 기소도 2015년에 비해 50% 늘어난 1만3,500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승희 기자



중국불교연합은 음력 설 첫 분향자에게 행운이 깃든다는 중국 내 미신이 불교전통이 아님을 단호히 주장했다. 사진출처=bbc.com

中불교, 음력설 분향 목메는 이들 '일침'

첫 분향자 되기 위해 베이징 옹화궁 7만 명 운집

중국불교연합이 불교전통과 동떨어진 기복 신앙적 분향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홍콩매체 'south china morning post(이하 SCMP)'는 1월 29일(현지시간) "음력 1일(28일) 불전에 첫 향을 피우려 중국 전역서 몰려든 인파 7만 명이 베이징 옹화궁(雍和宫)에 운집했다. 이들에겐 음력설에 가장 먼저 분향을 하는 사람에게 1년 동안 대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중국불교연합은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 풍습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중국불교연합은 "음력 첫날 처음으로 사원에 분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깃든다는 생각은 명백한 미신"이라며 "분향 순서가 빠르거나 크고 비싼 향을 피운다고 특별히 영적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기복을 바라고 사람들이 며칠씩 길에 서서 밤을 새거나, 안전선 없이 몰려든 7만 명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 2,000명이 동원된 사실 등을 두고 "불교 풍습도 아닐뿐더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행동을 불교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올해 첫 옹화궁 분향자는 중국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왕 모씨다.

왕 씨는 "옹화궁 앞에서 26시간을 기다렸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1등 배향자로 기록돼 기쁘다"며 "2014년엔 48시간을, 2015년엔 77시간을, 2016년엔 35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소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